

# 자율동아리활동 참여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분석\*

김한솔\*\*·장여옥\*\*\*

## 초 록

본 연구는 자율동아리활동 참여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중 자율동아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두 곳의 일반 고등학교 청소년 176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은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협업 역량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의사소통, 협업, 창의력, 사회정서, 진로개발 역량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지속성, 참여유형, 참여기간, 참여정도에 따라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은 차이가 있었다. 자율동아리활동의 참여지속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의사소통과 협업 역량이 높았다.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유형 중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의 의사소통, 사회정서, 진로개발 역량을 높였다. 활발하게 자율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의사소통과 협업 역량을 높게 보였다. 반면에 자율동아리활동 참여기간에 따른 청소년활동 역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율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자율동아리활동,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임.

\*\* 김한솔,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졸업, asuka6555@naver.com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초빙교수, yochang@kw.ac.kr

## I.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는 학교나 기관에서 지식을 습득했는지의 여부보다는 학습한 내용과 숙련정도의 핵심역량에 더 가치를 둔다(조석희, 2017). 따라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다양한 영역을 융합 및 통합하고, 변화된 사회와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 및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다(교육부, 2015).

이에 따라 학교 안과 밖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합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활동에서는 청소년이 급변하는 현실과제나 진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성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고, 교과 외 교육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영역을 설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율동아리활동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청소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율동아리활동은 소질, 적성, 취미가 유사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창의적으로 계발 및 발전시키며 자아실현의 기초를 형성하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집단 활동이다(교육부, 2015).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에 포함된 공감과 소통의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성과 협동성의 협업역량, 자기인식과 또래관계기술의 사회정서역량 등은 자율동아리활동이 추구하는 목표를 검증하는데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기존의 동아리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진로 의식과 태도, 진로탐색 및 진로발달(최영선, 이병옥, 2011;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허철수, 강옥련, 2010)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변화로 인해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자율동아리활동의 참여특성과 청소년 역량의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청소년의 주도성 및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자율동아리활동은 청소년중심 교육실현을 통한 미래사회 대비 역량개발에 필요하므로(정나

라, 2014) 청소년들의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와 핵심역량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중학생에 비해서 고등학생이 미래에 대한 고민 및 대학입시 등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하고자 하며, 가정의 경제상황과 취업 기회 등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므로(최영선, 이병욱, 2011)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및 교과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율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분석해 일반적 특성과 참여특성에 따라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율동아리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자율동아리활동 참여특성에 따라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은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자율동아리활동

자율동아리활동은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이다(교육부, 2013).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진로나 적성과 관련된 동아리를 개설하여 활동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생적으로 구성된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구성원 간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배움을 즐기며,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개발의 기회를 갖고, 인지적 및 정의적 관계를 자연스럽게 맺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활동별 내용에 따라 자율동아리활동은 예술·체육활동, 학술문화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된다. 예술·체육활동은 음악활동, 미술활동, 연극·영화활동, 체육활동, 놀이활동을 포함한다. 학술문화활동은 인문소양활동, 사회과학탐구활동, 자연과학탐구활동, 정보활동으로 구분된다. 실습노작활동은 가사활동, 생산활동, 노작활동, 창업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단체활동은 국가가 공인한 청소년단체의 활동으로 구분된다(교육부, 2015).

자율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자율동아리활동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여 봉사활동 및 진로활동과 연

제시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진로계획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교육부, 2015). 또한, 자율동아리활동은 장래 직업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결정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준다(신은경, 윤경, 김진강, 2016; 최영미, 2016). 청소년들은 자율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흥미, 관심, 적성 등을 파악하여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별하고 선택하여 배워나감으로써 잠재력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소연희, 2007).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자율동아리활동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특정한 동아리나 클럽보다 자유롭고 최소한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는다(이주현, 김효정, 2019).

## 2.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역량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힘이며(박보영, 2009), Spencer와 Spencer(1993)는 특정한 직무나 상황에서 준거에 따른 수행과 인과적으로 관련된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역량이라 하였다. OECD(2005)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개인의 삶에서 성취를 이루고 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역량을 알아본 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제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에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으로 신체역량, 정신역량, 지적역량, 진로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역량을 제시하였다(김창환 외,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변화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강조하였다(성은모, 최창욱, 2014).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지식정보 처리역량, 자기관리역량을 제시하였다(온정덕, 201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에서 함양할 수 있는 6가지 영역의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먼저, 비판적 사고는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원칙에 따라 배움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의사소통은 생각과 질문, 아이디어와 해결방법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소통능력을 말한다. 협업은 하나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재능과 전문지식을 합치는 능력으로 공동체성과 협동성을 포함한다. 창의력은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정서 역량은 자

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능력으로 자기표현, 포래관계기술, 자기인식 및 관리조절 등을 포함한다. 진로개발 역량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하고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독특성을 개발하여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설계·실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생애기반 진로선택 및 준비와 진로관련 적응력을 포함한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자율동아리활동과 청소년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학동아리활동은 고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 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진로개발 역량 함양에 효과적이었다(이유미, 2018). 대구광역시교육청(2017)에 따르면 동아리활동은 청소년의 자기관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자율동아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관계적응도, 협동심과 사회성 함양에서 높았다(최영미, 2016).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중에서 자율동아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두 곳의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원활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수업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설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240부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과 무응답, 자율동아리활동 미경험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자율동아리활동

본 연구의 자율동아리활동 참여특성은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지속성, 유형, 기간, 참여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행연구들(설승원, 2007; 최영미, 2016)을 참조하여 설

문지를 구성하였다.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유형은 교육부(2009)의 동아리활동별 내용에 따라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 2)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이 청소년 역량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후 개발한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사용하였다.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은 총 63문항으로, 비판적사고(6문항), 의사소통(10문항), 협업(9문항), 창의력(6문항), 사회정서(20문항), 진로개발(12문항)로 이루어져 있다. 본 측정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값은 총 .902이며, 비판적사고 .885, 의사소통 .899, 협업 .892, 창의력 .868, 사회정서 .938, 진로개발 .931이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율동아리활동 참여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율동아리활동 참여특성 중 참여지속성, 참여유형, 참여기간, 참여정도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176명 중 성별은 남자가 84명(47.7%), 여자가 92명(52.3%)이었으며,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22명(12.5%), 2학년이 69명(39.2%), 3학년이 85명(48.3%)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6)

구분		N	%
성별	남	84	47.7
	여	92	52.3
학년	고등학교 1학년	22	12.5
	고등학교 2학년	69	39.2
	고등학교 3학년	85	48.3

## 2. 자율동아리활동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분석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협업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11, p<.05$ ).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하나의 목표를 두고 여러 명의 의견과 역량을 합치는 능력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별과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창의력, 사회정서, 진로개발 역량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2〉 성별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차이

(N=176)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비판적 사고	남	84	4.17	.68	1.41
	여	92	4.04	.75	
의사소통	남	84	3.97	.66	-.18
	여	92	3.99	.70	
협업	남	84	3.74	.70	-2.11*
	여	92	3.96	.75	
창의력	남	84	3.40	.76	.46
	여	92	3.34	.96	
사회정서	남	84	3.88	.62	-.52
	여	92	3.94	.66	
진로개발	남	84	3.57	.73	-1.02
	여	92	3.69	.91	

\*\*\* $p<.001$ , \*\* $p<.01$ , \* $p<.05$

학년에 따라 의사소통( $F=3.43, p<.05$ ), 협업( $F=5.75, p<.01$ ), 창의력( $F=3.10, p<.05$ ), 사회정서( $F=9.70, p<.001$ ), 진로개발( $F=3.38, p<.05$ ) 역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비판적 사고 역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율동아리활동에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이 다른 학년과 비교하였을 때 협업, 사회정서와 진로개발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학년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차이

						(N=176)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사후검증
비판적 사고	고1 <sup>a</sup>	22	4.10	.91	2.22	
	고2 <sup>b</sup>	69	4.00	.71		
	고3 <sup>c</sup>	85	3.97	.65		
의사소통	고1 <sup>a</sup>	22	3.69	.80	3.43*	
	고2 <sup>b</sup>	69	4.03	.72		
	고3 <sup>c</sup>	85	3.81	.58		
협업	고1 <sup>a</sup>	22	3.54	.77	5.75***	a<b b>c
	고2 <sup>b</sup>	69	3.96	.69		
	고3 <sup>c</sup>	85	3.64	.73		
창의력	고1 <sup>a</sup>	22	2.93	.74	3.10*	
	고2 <sup>b</sup>	69	3.37	.85		
	고3 <sup>c</sup>	85	3.34	.89		
사회정서	고1 <sup>a</sup>	22	3.42	.73	9.70***	a<b a<c
	고2 <sup>b</sup>	69	4.01	.62		
	고3 <sup>c</sup>	85	3.91	.56		
진로개발	고1 <sup>a</sup>	22	3.24	.93	3.38*	a<b
	고2 <sup>b</sup>	69	3.69	.79		
	고3 <sup>c</sup>	85	3.52	.80		

\*\*\* $p<.001$ , \*\* $p<.01$ , \* $p<.05$

## 2)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지속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분석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지속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지속성에 따라 의사소통( $F=3.12, p<.05$ )과 협업( $F=5.18, p<.001$ ) 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회정서와 진로개발 역량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지속성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협업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협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활동’ 또한 ‘올해

만 활동'과 '과거 활동 경험 있음'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과거에 자율동아리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보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자율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협업 역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지속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

(N=176)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사후검증
비판적 사고	지난해 이어 올해 활동a	70	4.13	.68	1.41	
	올해만 활동b	56	4.17	.67		
	지난해만 활동c	30	4.08	.55		
	과거 활동 경험 있음d	20	3.84	.49		
의사 소통	지난해 이어 올해 활동a	70	4.15	.60	3.12*	
	올해만 활동b	56	3.91	.65		
	지난해만 활동c	30	3.84	.61		
	과거 활동 경험 있음d	20	3.80	.51		
협업	지난해 이어 올해 활동a	70	3.98	.64	5.18**	a>d b>d
	올해만 활동b	56	3.94	.74		
	지난해만 활동c	30	3.78	.68		
	과거 활동 경험 있음d	20	3.33	.60		
창의력	지난해 이어 올해 활동a	70	3.54	.88	1.15	
	올해만 활동b	56	3.21	.86		
	지난해만 활동c	30	3.45	.86		
	과거 활동 경험 있음d	20	3.41	.79		
사회 정서	지난해 이어 올해 활동a	70	4.02	.60	1.78	
	올해만 활동b	56	3.82	.69		
	지난해만 활동c	30	3.94	.50		
	과거 활동 경험 있음d	20	3.73	.49		
진로 개발	지난해 이어 올해 활동a	70	3.60	.93	.36	
	올해만 활동b	56	3.58	.76		
	지난해만 활동c	30	3.73	.67		
	과거 활동 경험 있음d	20	3.74	.52		

\*\*\* $p < .001$ , \*\* $p < .01$ , \* $p < .05$

### 3)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분석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차이는 〈표 5〉와 같으며, 자율동아리활동 유형 중 실습노작활동에 응답한 청소년이 없었으므로 분석결과 표에

서는 삭제하였다.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의사소통( $F=5.81$ ,  $p<.001$ ), 사회정서( $F=16.56$ ,  $p<.001$ )와 진로개발( $F=2.83$ ,  $p<.05$ ) 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비판적 사고, 협업과 창의력 역량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유형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역량은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가장 높았다. 사회정서 역량은 학술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보다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다른 참여유형에 참여한 청소년보다 높았다. 진로개발 역량은 사후검증 결과 각 참여유형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

						(N=176)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사후검증
비판적 사고	학술활동a	102	4.17	.51	1.79	
	문화예술활동b	34	3.88	.91		
	스포츠활동c	20	4.10	.62		
	청소년단체활동d	20	4.15	.65		
의사소통	학술활동a	102	4.00	.59	5.81***	a<d b<d c<d
	문화예술활동b	34	3.83	.67		
	스포츠활동c	20	3.70	.59		
	청소년단체활동d	20	4.43	.50		
협업	학술활동a	102	3.83	.66	2.20	
	문화예술활동b	34	3.81	.74		
	스포츠활동c	20	3.70	.90		
	청소년단체활동d	20	4.22	.50		
창의력	학술활동a	102	3.42	.88	1.94	
	문화예술활동b	34	3.63	.91		
	스포츠활동c	20	3.24	.55		
	청소년단체활동d	20	3.50	.90		
사회정서	학술활동a	102	3.98	.53	16.56***	a>b a<d b<d c<d
	문화예술활동b	34	3.49	.64		
	스포츠활동c	20	3.66	.52		
	청소년단체활동d	20	4.50	.42		
진로개발	학술활동a	102	3.69	.73	2.83*	
	문화예술활동b	34	3.79	.84		
	스포츠활동c	20	3.22	.76		
	청소년단체활동d	20	3.47	.92		

\*\*\* $p<.001$ , \*\* $p<.01$ , \* $p<.05$

#### 4) 자율동아리활동 참여기간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분석

자율동아리활동 참여기간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은 집단 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자율동아리활동 참여기간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

(N=176)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사후검증
비판적 사고	6개월 미만	75	4.16	.62	.48	
	1년 이상	64	4.05	.69		
	2년 이상	37	4.07	.59		
의사 소통	6개월 미만	75	3.93	.59	.50	
	1년 이상	64	3.99	.67		
	2년 이상	37	4.06	.60		
협업	6개월 미만	75	3.81	.70	.56	
	1년 이상	64	3.83	.73		
	2년 이상	37	3.93	.64		
창의력	6개월 미만	75	3.21	.87	2.27	
	1년 이상	64	3.51	.80		
	2년 이상	37	3.46	.93		
사회 정서	6개월 미만	75	3.86	.67	2.39	
	1년 이상	64	3.86	.61		
	2년 이상	37	4.10	.43		
진로 개발	6개월 미만	75	3.54	.74	1.17	
	1년 이상	64	3.64	.79		
	2년 이상	37	3.79	.89		

\*\*\*p<.001, \*\*p<.01, \*p<.05

#### 5)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분석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는 의사소통( $F=5.16$ ,  $p<.01$ )과 협업( $F=4.04$ ,  $p<.05$ ) 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의사소통과 협업 역량은 모두 '활발하게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즉, 활발하게 자율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동아리활동 계획, 운영 및 실행을 위해 또래 및 선후배들과 대화하고 함께 공동의 작업을 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이들의 의사소통과 협업 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청소년의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정도에 따라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회정서, 진로개발 역량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

(N=176)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사후검증
비판적 사고	거의참여안함 <sup>a</sup>	31	3.93	.64	1.44	
	가끔참여 <sup>b</sup>	23	4.08	.61		
	활발하게참여 <sup>c</sup>	122	4.15	.64		
의사소통	거의참여안함 <sup>a</sup>	31	3.77	.62	5.16**	c>a
	가끔참여 <sup>b</sup>	23	3.75	.60		
	활발하게참여 <sup>c</sup>	122	4.08	.60		
협업	거의참여안함 <sup>a</sup>	31	3.58	.58	4.04*	c>a
	가끔참여 <sup>b</sup>	23	3.73	.81		
	활발하게참여 <sup>c</sup>	122	3.95	.69		
창의력	거의참여안함 <sup>a</sup>	31	3.22	.77	.62	
	가끔참여 <sup>b</sup>	23	3.38	1.00		
	활발하게참여 <sup>c</sup>	122	3.41	.86		
사회정서	거의참여안함 <sup>a</sup>	31	3.91	.62	.16	
	가끔참여 <sup>b</sup>	23	3.85	.61		
	활발하게참여 <sup>c</sup>	122	3.93	.61		
진로개발	거의참여안함 <sup>a</sup>	31	3.65	.80	2.16	
	가끔참여 <sup>b</sup>	23	3.31	.69		
	활발하게참여 <sup>c</sup>	122	3.69	.80		

\*\*\* $p < .001$ , \*\* $p < .01$ , \* $p < .05$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동아리활동 참여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협업 역량이 높았지만 다른 역량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협동 역량이 더 높고, 여학생일수록 공동체를 중시하고 협업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선행연구(양소은, 2013)와 비슷하다. 학년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차이는 의사소통, 협업, 창의력, 사회정서, 진로개발 역량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입시에 모든 시간을 할애 할 가능성이 높은 고등학교 3학년 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이 모든 역량에서 높게 나타났으므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자율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 안과 밖에서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동아리활동 참여가 지속될수록 의사소통과 협업 역량이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이유미, 2018; 최창욱, 김정주, 송병국, 2005)과 동일하다.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유형 중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이 청소년의 의사소통과 사회정서 역량을 높였다. 즉, 청소년은 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해서 구성원간에 긴밀한 대화를 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자율동아리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비판적 사고, 협업과 창의력 역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율동아리활동 참여기간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차이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자율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 관계와 협력, 진로결정능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김혜림, 김효정, 2018; 최용혁, 2017)과는 상이하다.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자율동아리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의사소통과 협업 역량이 높았다. 즉, 청소년들이 자율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록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정도에 따라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회정서와 진로개발 역량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동아리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신은경 외, 2016; 최영선, 이병욱, 2011)과는 다르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율동아리활동 참여특성은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에 차이를 보였으며, 청소년들은 자율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자면 첫째, 청소년수련시설 및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제도와 지원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의 동아리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입시를 위한 자율학습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율동아리활동이 입시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유형의 자율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셋째, 자율동아리활동 참여유형 중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이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청소년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한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 및 청소년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신뢰하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를 연계하고 이런 단체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기관의 물적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흥미와 재능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자율동아리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부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및 학교 유형별로 다양한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자율동아리활동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자율동아리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차이분석만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율동아리활동이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할 수 없었다. 추후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동아리활동의 경험을 통한 청소년의 삶과 행동 및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3). 동아리활동 길라잡이(중·고 통합용 매뉴얼).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5).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 고등학교. 서울: 교육부.
- 김창환·엄문영·김기현·김종민·박종효·박현정 등 (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 (II):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혜림·김효정 (2018). 미술과 자유학기제 진로동아리 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미술교육연구논총, 54, 141-175.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7). 2017 대구행복역량교육과정 총론. 대구광역시교육청.
- 박보영 (2009). 평화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방안의 탐색. 교육사상연구, 3(1), 81-96.

- 설승원 (2007).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은모·최창욱 (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소연희 (2007). 선택권 제공이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가?: 선택권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의 쟁점과 교육적 함의. 한국교육방법학회, 19(1), 77-96.
- 신은경·윤경·김진강 (2016). 동아리활동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41(1), 133-154.
- 양소은 (2013). 누구와 소통 하는가: 연결된 청소년의 공동체적 삶 역량 계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온정덕 (2015). 교육과정 안에서 키워지는 핵심역량. 행복한 교육, 339, 10월호, 26-32.
- 이유미 (2018). 고등학생의 과학 동아리 프로젝트 학습이 핵심역량 함양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주현·김효정 (2019). 중학교 자율동아리 참여 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7(1), 67-75.
- 정나라 (2014). 인문계 고등학생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석희 (2017).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학생 역량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44(1), 7-11.
- 최영미 (2016). 중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 참여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선·이병욱 (2011). 공업계 고교 전공 동아리 활동이 학생 진로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1(2), 104-123.
- 최용혁 (2017). 예술계열 전문대학생의 동아리활동 참여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리활동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5(1), 159-173.
- 최창욱·김정주·송병국 (2005).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2(2), 57-76.
- 최형임·이재성·문영경 (2012).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1), 23-45.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청소년활동을 통해 키울 수 있는 핵심역량은? 보도자료 2018. 12. 28.

허철수·강옥련 (2010). 동아리 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한국청소년복지연구, 12(3), 25-46.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OECD.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Abstract

# Analysis of difference in core competency of youth activit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in autonomous club activities

Kim Han Sol·Chang Yo 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core competency of youth activiti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in autonomous club activities. This study used 176 adolescents from two general high schools in Gyeonggi-do who have autonomous club activities. The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and pos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youth's core competencies diffe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the case of gender, females were higher in cooperative competency than males. In the case of grade, the second grade of high school was higher in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 social emotion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than the other grade. Second, the core competencies of youth activiti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ersistence of participation in autonomous club activities, type of participation, duration of participation, and degree of participation. The higher the persistence of participation in autonomous club activities, the higher th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competency of adolescents. Among the types of autonomous club activities, youth group activities increased youth's communication, social emotion,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Youth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autonomous club activities showed higher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competency than those who did no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youth activity competency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period of autonomous club activ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lications for activating the autonomous club activities of adolescents.

**Keyword** : autonomous club activities, youth activities, core competency

투고일 : 2019. 08. 23    심사일 : 2019. 09. 21.    게재확정일 : 2019. 9. 30.